

Wendy L. Widder 박사, Daniel, 세션 10, 다니엘 7장, 하나님의 우월한 왕이자 영원한 왕국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0회, 다니엘 7장, 하나님의 우월하신 왕이시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니엘 7장에 있으며 나는 다니엘 7장, 하나님의 우월한 왕과 그의 영원한 왕국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있는 곳은 아람어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장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4장, 느부갓네살은 멋진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고, 결국 그는 그의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5장에서 벨사살은 벽에 쓴 글씨를 보고 그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고, 그의 왕국은 6장에 나타나는 다리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실함 때문에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고, 이어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원한 왕국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조상 2장과 4장은 비슷합니다.

둘 다 네 인간 왕국, 네 땅의 왕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 심지어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속될 다섯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연대기에서 우리는 실제로 백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표에 따르면 우리는 여호야김 3년, 즉 느부갓네살 통치 초기에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은 느부갓네살 제이년이었습니다. 그는 3장에서 조각상을 세웠는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다.

5장은 539년 바벨론이 함락되었을 때의 벨사살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6장은 539년경으로,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경력 초기였을 것입니다. 7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7장은 다니엘서에서 정말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상 문자 그대로 거의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교차 구조와 Daniel Seven이 그 일부인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아람어이고 주제별로 2장과 연결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지만 다니엘 세븐은 장르의 변화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6개 장에 걸쳐 살펴본 이야기에서 벗어나 7장부터 묵시적인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븐은 책의 첫 번째 부분을 하나로 묶었지만, 실제로는 그 장르에서 두 번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다른 비전이 채우고 일부 세부 사항을 채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제가 책의 핵심이자 경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주적 관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광경의 한가운데에는 왕좌의 방이 보이는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좌의 방을 보면서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왕국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영원한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억압당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보상이 있을 것이며 이 영광스러운 유산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격려는 이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7장을 벗어나면 격려가 훨씬 더 부족해 집니다. 7장만큼 영광스럽진 않습니다.

7장은 그것이 제시하는 격려의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격려를 받아들인다면 책의 나머지 부분을 끝까지 읽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영원한 보상, 성도들의 기업,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오랜 비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책에서 매우 훌륭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책을 깔끔하게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장이다. 장르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7장은 언어와 연결됩니다.

언어별로 나누어 보면, 7장은 당신을 다시 묵시론으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7장은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묘사하는 비전과 그것이 주는 희망과 격려를 고려할 때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학의 종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7장은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은 실제로 환상 문학이라고 불리는 더 큰 그룹이나 더 큰 종류의 문학의 일부입니다. 환상적 문학에는 작가나 작가가 글을 쓰는 당시의 상상 속에 존재하거나 보고 있지만 아직 경험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보고 그리는 일종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주로 Leland Ryken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문학으로 읽고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에 관한 훌륭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적인 문헌과 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 중 상당수는 그의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환상 자체는 문자 그대로 일어날 일을 묘사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상징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의 사건을 묘사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 설명이 반드시 해당 사건을 문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환상적 문학이라는 우산 아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예언적 문학, 아니면 그냥 예언이라고 말하고 싶고 묵시적인 문학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상호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이러한 차이점 중 일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문학은 작가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종종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거나, 억압자에게 처벌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압제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지혜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시문학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나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러한 것들은 문학의 한 부분에 모두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찾는 경향은 상징의 집합, 특성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중 몇 가지가 문헌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은 상징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시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도 상징주의를 다루려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문학에서 매우 흔한 것은 환상과 다른 세상의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선견자, 환상을 본 사람은 다른 세계에서 여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초자연적이거나 천사적인 통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환상가, 선견자는 아브라함이나 에녹, 또는 족장 중 한 사람처럼 먼 과거로부터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본 사람이 택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쓰는 이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맞게 말 했니? 그렇게 생각해요. 익명의 작가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다른 이름, 즉 가짜 이름을 취하고 그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 비전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과 그 이름으로 존경받는 전통을 바탕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에는 종종 의인에 대한 박해, 우주적 멸망, 최종 심판, 세상의 멸망, 그리고 종종 오락이 포함됩니다. 이 두 종류의 문학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의 특징이 아닌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에서 우리가 매우 자주 보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진술입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묵시문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것은 환상을 통해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전을 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전보고서입니다.

예언에서 그들은 종종 실시간, 실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실제 인물인 이사야가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묵시문학에서는 때때로 과거에 존경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묵시문학에서 흔한 일이다. 예언에서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당면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격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미래에 성취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는 선지자인 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후 예언, 즉 사후 예언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이름은 과거에서 온 것이 마치 예언인 것처럼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며, 과거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사람들을 격려하려는 의도로 미래를 조금 투사합니다.

그 격려에 그들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이라는 사실에 희망과 안식을 가질 수 있다. 상징주의는 묵시론에서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언은 상징을 사용하지만 거의 같은 정도는 아닙니다.

또 다른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은 예언에는 현시점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고장났어요.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경우 상황이 너무 나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우주적 재앙, 그것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묵시문학과 예언에 관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점은 예언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리라 그러나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들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묵시록은 좀 더 결정론적인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상 고정된 기간이 있는 다니엘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결정론에 가깝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물을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우주적으로 행동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글쎄요, 묵시문학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서 7장을 읽을 때 네 짐승으로 대표되는 네 왕국의 정체에 대해 많은 관심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 있을 때 그 중 많은 부분을 7장으로 미룰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특강에서는 한 강의 더 하기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7장과 8장을 결합하여 2장, 7장, 8장의 세 장을 모두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강의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장과 본문이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관심을 두는 것은 왕국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텍스트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매우 다릅니다.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통역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강의 강조가 아닙니다.

이제 텍스트 자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한두번 강의에서 왕국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나는 이 장의 개요를 많은 주석들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나는 신약성경 학자가 요한계시록을 분석한 기사를 바탕으로 그것을 구성했는데, 그 내용은 명백히 묵시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확인한 몇 가지 주요 문학적 특징에 따라 그것을 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서의 구성을 돕기 위해 그의 언어 중 일부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중 제가 이야기할 것 중 하나는 시공간 지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전의 구조를 체계화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련의 공식적인 진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보았다, 내가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이 비전 전체에는 개요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몇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문구 중 하나는 비전 블록입니다. 따라서 7장은 비전이지만 세 개의 비전 블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큰 덩어리는 각각 매우 유사한 문구로 소개됩니다.

이러한 주요 섹션에는 여러 개의 작은 섹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 요소는 개별 비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의 주요 섹션과 세 개의 비전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안에는 여러 가지 비전적 요소 또는 개별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텍스트의 구조와 거기에 있는 문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세 블록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조가 맞다면 1부터 6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든 간에 13개입니다.

스물 여덟. 이들 각각은 꽤 긴 소개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동일합니다. 그 진술은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환상의 블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밤에 내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당신은 블록을 얻었습니다. 나는 밤에 내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당신은 블록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블록별로 읽어보고 각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블록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세 짐승의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니엘 7장 1부터 6까지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 누워 머리 속으로 나타난 꿈과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전부를 말하였다. 다니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며,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더라.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뾰히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은지라. 그리고 보라,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둘째는 곰 같은 짐승이다. 한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세 개가 있고, 일어나서 살을 많이 먹어라 하는 말을 들었더라. 그 후에 내가 보니 표범 같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네 개가 달렸느니라. 그 짐승은 머리 넷이 있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었느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 개별적인 환상, 거기에 있는 몇 가지 핵심 단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보고 또 보라. 첫 번째는 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의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5절인데, 그것은 둘째 짐승인데 곰 같은 생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섯 안에 있는데, 그것은 셋째 짐승인데 표범 같은 생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시작 부분에는 우리의 시공간 지시대상인 1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인칭 화자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렇죠? 다니엘은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래서 우리는 연대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기에는 혼란스러운 연대기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연도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원전 553년입니다. 그 해는 벨사살의 원년입니다.

그것이 초기 또는 통치 초기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글썄, 우리는 아마도 553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에서는 이러한 날짜 공식과 시공간 지시 대상을 갖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단지 선견자가 있는 곳으로 독자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이러한 날짜 공식은 환상을 다시 이야기 장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친숙한 연대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책의 일부 별도의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났던 이야기와 캐릭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벨사살입니다. 이 환상과 8장의 다음 환상은 모두 벨사살의 통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벨사살의 통치 중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성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이 아닌 지금 이러한 환상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왜 굳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벨사살이 이 책에서 이 반항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왕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에 있을 때 나는 그가 앞으로 올 더 나쁜 왕들의 원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올 더 악한 왕 중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벨사살의 기억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가 벨사살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불길한 느낌을 거의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거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비전이 확대된 형태로 보여줄 것입니다. 일전에 내가 여기서 본 아볼로 주석을 쓴 어니스트 루카스는 벨사살을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하는 왕들의 희미한 전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것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2절의 첫 번째 개별 환상에서 그는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요동치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4는 문자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자 그대로 네 마리의 짐승을 묘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사방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전체성일 수도 있다.

그래서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젓는다고 하셨습니다. 음, 네 개의 바람이요? 그가 의미하는 바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바다를 휘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네 마리의 짐승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짐승들이 역사적 언급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총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해(Great Sea)는 일반적으로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 생각에 여기서는 아마도 신화 속의 거대한 바다를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적 혼돈, 통제가 필요한 무질서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에 위협이 되며,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힘만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에서 이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혼란에 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혼란에 그는 질서를 가져옵니다.

다른 고대 근동 문화에는 그들만의 창조 이야기와 창조 신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원시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신화인 에누마 엘리쉬에는 바다의 여신 티아맛과 싸우는 마르둑 신이 있는데, 그는 신들의 통치권, 신들에 대한 왕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가릿의 창조신화에는 바엘이라는 이름의 구름 탄 신이 있는데, 바엘은 바다의 신을 물리치고, 바다의 신을 물리침으로써 신들에 대한 왕권을 얻게 된다.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거대한 원시 바다가 불길한 징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길하다. 원시 바다가 있는 풍경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소란스러운 바다를 보면 불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별로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마리의 짐승이 일어나고 그는 세 마리의 짐승을 묘사합니다. 그는 처음 세 개는 다른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따라서 그가 보는 것은 정확히 사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곰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표범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자 같은 것, 곰 같은 것, 목자 같은 것, 아니면 미안하지만 표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각각은 분명히 그들을 사자 같지 않고, 곰 같지 않고, 표범 같지 않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곰이 몸을 굽힌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한쪽에서 솟아오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입에 갈비뼈가 달려 있고 일종의 돌연변이처럼 보입니다. 표범에는 머리가 네 개 있습니다. 글쎄요, 저건 보통 표범이 아니군요.

그리고 날개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첫 번째 환상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상 시리즈에서 나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만 다루었어요. 그 점을 다루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 첫 번째 짐승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자 같은 생물에서 동물보다 인간에 더 가까운 생물로 변했습니다. 네 발로 엮드린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설명하는 수동 동사 언어를 얻습니다. 날개가 뿔혀 있었습니다. 그 생물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발에 섰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주어졌습니다. 마치 이 생물은 이러한 일들 중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궁극적으로 짐승보다 더 인간적인 무언가가 되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곰 같은 생물인 곰이 한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뛰어들 준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입에 있는 갈비뼈는 방금 몇 마리의 생물을 도살했다는 사실과 최근의 공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직 식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은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또한 외부 세력에 의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세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표범은 머리가 넷이고 날개도 넷이며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표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수동 동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하면 정말 섬뜩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소란스러운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이런 돌연변이 종류의 생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전 블록의 끝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꽤 짧습니다.

두 번째 는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후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무섭고 무섭고 심히 강하더라.

그것은 거대한 철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어치워 조각내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짐승은 이전의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열 뿔이 있었더라

내가 그 뿔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 사이에 또 다른 뿔 곧 작은 뿔이 나더니 그 앞에 세 뿔이 뿌리까지 뻗혔느니라.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더라. 내가 보니 보좌들이 놓여 있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는 불이더라. 그의 앞에서 불의 흐름이 흘러나와 나왔다.

천천 이요 그의 앞에는 만만이 섰느니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때에 내가 그 뿔이 발하는 큰 말소리 때문에 보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상하여 불에 살라지는 데 넘겨졌더라.

그 나머지 짐승들도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때와 한 때 동안 연장되니라 따라서 이 블록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중 5 개가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넷째 짐승, 곧 다른 짐승과 다른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8절의 첫 부분인 8절에는 작은 뿔이 나옵니다. 8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술을 보게 되는데, 이는 또 다른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이것이 작은뿔의 눈과 입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셀 수가 없네요. 신의 보좌실은 4번이요, 그것이 9절과 10절이고, 그 다음 11절과 12절이 네 짐승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비전 각각은 비전에 대한 진술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섹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 네 번째 생물은 다른 어떤 생물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처음 세 짐승은 모두 다니엘이 인식한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사자같고, 곰같고, 표범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명시적으로 말하지만,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무섭고 무섭고 극도로 강하다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그의 생각 모음에는 이

짐승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짐승은 그를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채웁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여기서 우리의 치아스틱 구조를 고려하면 그 언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느부갓네살의 신상에는 매우 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네 번째 왕국이었습니다.

철제 다리는 확실히 철만큼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짐승은 다른 것 같으니 그 생김새만 다른 것뿐 아니라 하는 일과 하는 일도 다른 것 같더라.

이 모든 짐승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에게 행해진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짓밟고, 짓밟고, 삼키고,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은 열 개입니다. 구약의 뿔은 권세를 상징하므로 이 짐승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정상적인 동물은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보통 짐승의 다섯 배나 되는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짐승이 정말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다음 개인 비전인 작은 뿔을 봅니다.

열 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군요. 자, 이것은 열한 번째 뿔입니다. 이것은 짧고 작은 환상이지만 이 작은 뿔이 실제로 여기서부터 환상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거의 배경 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환상은 실제로 이 작은 뿔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세 개의 뿔이 뽑힌다. 게다가 다니엘은 이 작은 뿔에 눈과 입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은 자랑스러운 말이나 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는 않지만 구약성서에서 종종 눈과 말에 관한 구절은 그것이

품성을 나타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눈과 입이 멈추지 않는 이 작은 별에 대한 이 묘사는 그 오만함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이는 나중에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별의 특징은 교만과 불경과 사악함입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9절에서 또 다른 개인적인 환상을 보고 왕좌의 방을 봅니다. 그는 보좌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이 알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천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지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신성한 의회의 비전일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당신에게 친숙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성한 의회 진리에 대해 짧은 단기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긴 섹션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절을 제외한 11장의 전체 내용과 12장의 처음 네 절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도달하기 전에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좀 더 자세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더 작은 덩어리.

따라서 천사가 이 계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가 겪게 될 예언적 관심 분야는 다섯 가지, 즉 다섯 가지 특정 시대가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강한 왕 또는 강한 왕이라고 부를 그리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해,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것이다. 그는 단지 비열한 사람으로 불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버전에서는 그를 경멸할 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왕에 관해 매우 많이 논의되고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르면 1136년에 시작됩니다. 특히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 사건을 추적해 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역사에 적용되는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선지자가 틀렸거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했습니다. 나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후 예언 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36절에 도달할 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정의 훨씬 앞부분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을 더 혼란스럽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전 일이어서 어쨌든 여러분은 의심할 바 없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이후의 예언, 즉 사건 이후의 예언은 묵시문학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의 질문은 그 장르가 맞는지, 묵시문학의 요소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니엘서의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사후예언 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

에 따르면 안티오코스를 박해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2세기 익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언을 기록한 구체적인 날짜는 167년입니다. 따라서 167년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실제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선지자를 넣을 것입니다. 비록 이 관점에서 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채택한 익명의 2세기 유대인이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그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했지요? 음, 장르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소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쓰고 싶은 글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과정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그의 백성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은 미래 역사의 흐름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이 결정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것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돌아가서 포로 시절부터 매우 존경받고 존경받는 인물, 즉 실제 다니엘, 역사적 다니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다니엘이 그의 입이 되거나 다니엘의 이름을 사용하는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다니엘의 이름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세기에 여기 아래에 있는 동의어인 유대인에 의해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전하는 이 예언은 확실히 이 시점까지의 시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 제국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 등장하는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예언을 그대로 실현할 것입니다.

왜? 글썄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마치 자신이 여기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그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실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목소리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얻습니다. 이 예언의 11장에는 놀라운 세부점이 나옵니다.

내 말은, 우리가 그것을 겪을 때, 그것은 빈칸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언에 역사적 이름을 넣을 수 있는데, 마치 역사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 예언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과도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상해요. 자, 묵시문학이나 그 장르의 관점에서는 이상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의 이 부분, 모든 세부 사항에 도달하면 그는 이 역사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이 전체 장르가 실제로 이 신비한 사람, 미디어 사람 다리우스의 이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메모야, 알았지? 이는 11장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사전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 작가는 그에게 고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약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신에 다리우스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실제로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내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정말 이 사람의 역사관에 대한 썩은 견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우리가 그렇게 큰 오류를 범하고 네 번이나 범한 성경 저자들에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를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네 번이나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요점을 벗어났습니다.

나는 옆으로 쫓겨난다. 좋아요, 그래서 그는 이 지점을 여기까지 쫓 뺐었고 여기가 1136입니다. 우리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높이는 왕 안티오코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티오코스가 어디서 죽을지 등 안티오코스에 관해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이 시점부터 그는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단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그가 옳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오류를 허용합니다. 좋아요, 이것이 전 상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요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당신이 복음주의자이거나 기독교 학자이고 이 견해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당신의 견해, 성경의 권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장르의 사용이 그 모든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꽤 복잡해집니다. 몇 가지 매우 근본적인 질문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외에도, 이것이 바로 이 견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장르가 성경에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남겨두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장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문학이나 글의 어떤 측면이든 사용하기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언입니다.

이제 예언으로 돌아갑니다. 11절, 바사 왕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보라, 페르시아에서 세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사분의 일이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부를 통해 강해지자마자 그는 그리스 왕국에 맞서 제국 전체를 선동할 것입니다.

여기에 네 명의 왕이 있다는 사실은 페르시아 왕들의 수를 어떻게 셀 것인지에 관해 많은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완성의 숫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3개 더하기 1개가 더 있는데, 이는 실제로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12명 정도의 왕이 있지만 모두입니다. 자, 이것이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그가 강한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즉 그리스 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강력한 사람, 여러분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어로 말하겠습니다. 강력한 그리스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큰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원하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자마자, 그의 왕국은 분열되어 사방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휘두르는 권세에 따라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의 주권은 뿌리째 뽑혀 그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왕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 강력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336년에 집권해 동방으로 유례없는 군사작전을 벌였고, 10년 안에 터키에서 인도까지 진격해 그때까지 가장 큰 제국을 세웠다. 그는 330년에 다리우스 3세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망하고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분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겪었던 역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유일한 사람들, 그리고 이 계시가 관심을 가질 유일한 사람들은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예언에서는 그들을 북방 왕, 즉 셀레우코스라고 부르고, 남방 왕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방과 남방의 왕들이요. 이제 제가 시작하는 이 섹션은 셀레우코스과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의 수백 년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내가 멈춰서 당신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면, 당신은 멍청한 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적절한 비전의 매우 빠른 부분이 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블록의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그는 이 사람을 사람의 아들로 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다는 것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비교 언어로 돌아왔음을 주목하세요. 처음 세 짐승은 다른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 인간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조입니다. 짐승들아, 여기 인간이 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시느니라.

구약성서에서 구름 이미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때로 구름은 기상 현상을 언급하면서 하늘에 떠다니는 것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구름은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무언가의 무상함, 광대함, 뚫을 수 없음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구약성서에서 구름의 사용은 신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출처가 올바르게 계산된 경우 87번 중 약 58번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처음 다섯 권의 책인 오경에 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시내산, 회막 위에 여호와와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에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는 성전 본문에서 우리는 구름에 관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이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특히 다니엘 7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누군가가 전차처럼 구름을 탄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름 속에 있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마치 마차처럼 구름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 바알이 가장 유명합니다. 바알은 실제로 구름 기수 또는 구름의 기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담당하는 그가 손에 번개를 들고 구름 위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를 내리거나 내리지 않고 그의 신민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구름을 타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와 구름을 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분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지나가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심판하실 때 구름을 타십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나훔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왕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왕좌에는 옛적부터 늘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나쁜 왕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여, 그렇죠? 하지만 그에게도 구름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방금 큰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겐 클라우드 라이더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구름을 탄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여호와를 모셨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타고 있는 구름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단일 환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두 명의 야훼 인물입니다.

그는 옛적부터 늘 계신 분을 보고, 구름 라이더를 봅니다. 그리고 이 구름 라이더는 통치할 권리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가 보좌 앞에 나타나시매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느니라.
다니엘은 이상하게도 하늘에서 두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와 구름 탄 자를 보느니라. 그는
야훼와 함께 권력을 공유하는 부섭정을 봅니다. 그러나 그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기 이 신성한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형적인 고대 근동 신성한 의회에서 엘은 높은 신입니다. 적어도
우가리트어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그의 부총리는 바알이다. 구름탄 바알에게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부총장입니다.

그러므로 엘과 바알 부섭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엘은 높은 신이다. 바알은 가족의 일부입니다. 다니엘 7장이 시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신의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야훼가 있고, 그 본질을 공유하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부섭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더 낮지 않아요. 같은 언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름
라이더이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늘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 즉 동등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 야훼입니다.

글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글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성한 의회와 고대
근동의 신성한 의회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구약의 신성한 회의 개념이 신약으로 이동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해하는 데 완벽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섭정이시며 통치할
권리를 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국을 받습니다. 예, 그도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성한 회의에 대한 놀라운 그림이며, 이스라엘의 회의와 다른 회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다니엘 7장을 그토록 강력한 본문으로 만드는 이유 중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전에서 알게 될 이 인간 같은 인물에게는 영원히 통치와 영광스러운 왕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사람의 아들이 받는 이 나라는 성도들과 공유되며, 그들은 그와 함께 영원히 통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다니엘서에 있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것,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위대함에 대한 이 훌륭한 그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격려를 제공하는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의 예배와 예배를 받을 인물입니다. 좋아요, 이상으로 비전의 첫 번째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 곳에서 해석적 막간이 있습니다. 와,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 아마도 왕좌 주위에 있는 수행자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나는 초기 해석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에 관한 진실을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인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신이 얻는 전부입니다. 이 네 짐승은 네 명의 큰 왕이다. 그게 다야? 그게 우리가 얻는 전부인가요? 이 비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환상은 이 사람의 아들과 관련된 성도들과 그들이 받는 상속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그 나라를 영원무궁토록 얻으리라. 이것이 초기 해석입니다.

그게 그가 얻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상한 생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네 명의 큰 왕이 있을 것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은 원래의 환상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은 이 초기 해석에 나타납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좀 더 알고 싶어해서 조금 더 밀어붙였습니다.

나는 특히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매우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이 짐승을 본 모습을 우리에게 거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설명에는 없었던 청동 발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승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열 뿔과 그 작은 뿔과 세 뿔과 눈과 입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사이에 아직도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또 다른 비전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묻고 있는 동안, 그는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고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해 신원하실 때까지입니다.

알았어, 그럼 조금 천천히 하자. 이 네 큰 짐승은 네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네 개의 왕국을 식별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강의에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시점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전체성일 것이다. 그것이 천사가 관심을 갖는 전부입니다.

이 네 큰 짐승은 네 왕입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은 네 바람에 의해 소용돌이치는 바다에서 자라거나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미지에는 전체성이 있습니다.

해석자의 가장 큰 관심은 짐승 같은 지상의 네 왕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왕국으로 주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의 세부사항, 즉 원래 비전이 중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해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정보가 어떤 한 가지 견해를 너무 엄격하게 고수하거나 본문에서 실제로 부차적인 것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보자. 그래서 그는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추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해석적 막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후에 우리는 더 많은 해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는 왕국을 대표하는 넷째 짐승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어떻게 반복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것인데 이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거대한 주석을 쓴 Greg Beal에 따르면 묵시문학에서 4를 사용하는 것은 4가 여기에 있는 사물의 상징적 성격을 암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묵시문학에서 4는 완전성의 숫자이며, 특히 보편적이거나 세계적인 범위를 의미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우주적 완전성의 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네 번째 왕국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발 물러서서 이 비전은 우주적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네 개의 인간 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주적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열 뿔은 이 넷째 왕국에서 나오는 열 왕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10은 묵시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역사는 흔히 10개의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뿔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을 가진 이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열한째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 왕은 독특해요. 그는 이전의 왕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는 세 왕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천사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대적하는 말로 말할 것입니다. 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단지 이 작은 뿔의 행동에 나타난 오만함이나 사악함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거룩한 자들은 반대의 말을 받고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을 상속받을 거룩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다니엘에서는 꽤 광범위하게 말하면 여기에서도 거룩한 자들은 하늘의 존재로 가장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들. 그러나 나는 다니엘서를 성경에서 커튼이 뒤로 젖혀진 드문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서는 지상 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의 당신의 삶.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행성 지구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 커튼을 뒤로 젖히고 지구상의 삶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엿볼 수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10장과 11장에서 이에 대해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이고 천사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천사이거나 신성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갈등이 무엇이든 지구에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너무 적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커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짝 엿볼 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이 두 영역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이 환상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나요? 우리는 천사를 보고 있나요? 누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작은 뿔과 그의 하늘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그 지역 위에 있으면 이 작은 뿔과 그의 하늘에 있는 자들아 지극히 높은 자의 거룩한 자들을 학대하면 그 일은 성도들을 심히 학대할 것이요 '지구의 사람들'.

좋아요. 통역이 끝날 때까지 답변되지 않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작은 뿔도 심판을 받으리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성도들에게 붙인 것이 아니요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자들의 백성에게니라 .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의 백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는 구약 전체에서 거룩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천사 같은 존재와 인간이 있다는 또 하나의 작은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거룩한 자들이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해석과 환상에는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많이 있으며 비전에도 없는 일부 세부 사항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스터리에도 괜찮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물러나서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하며 그것에 만족합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내 생각이 나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가장 높으신 성도들의 백성이 큰 학대를 받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벨사살의 통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실제로 회복 직전에 있습니다. 539년에 키루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은 자유로워졌고 어떤 면에서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금도 확보되었습니다. 강제 추방이 거의 끝났습니다.

확실히, 이 영광스러운 회복에 관한 선지자의 말씀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졌던 희망, 영광스러운 회복의 희망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글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도 큰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9장에 이르면 우리는 정말로 회복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Gabriel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단지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 전체 그림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만요, 다니엘. 다니엘은 고민에 빠졌지만 그 문제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반응은 그의 비전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 블록 3의 끝입니다. 전체 보고서의 끝입니다. 챕터의 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환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알려진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미스터리입니다. 그의 백성들 앞에는 더 나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좌의 방과 인자가 받는 이 환상에는 큰 위안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작은 뿔과 거룩한 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주적인 투쟁입니다. 이것은 단지 땅에서의 그들의 싸움이나 땅에서의 투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에는 우주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cl은 다니엘에 대한 해설을 갖고 있으며, 세계 질서가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 즉 천상과 지상 모두가 함께 다니엘 편에서 싸우는 챔피언이라고 말하면서 이 장 전체를 요약합니다.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말론적인 시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그런 일들을 실제로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묵시문학은 내 상황에서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헌이 매우 실제적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고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가 주는 위로는 엄청납니다. 이상으로 다니엘 7편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다니엘 8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0회, 다니엘 7장, 하나님의
우월하신 왕이시며 영원한 나라입니다.